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11월 발행 (제 67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유대인이라고 거짓말을하는 악마 숭배자들' 예레미야

◎간증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2)'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유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악마 숭배자들' 예레미야

요한복음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번에는 "유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악마 숭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있다 환난 시대는 실은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공언하는 악마 숭배자들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위 절에서 분명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이라고 공언하는 악마 숭배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뿐만 아니라 같은 종말의 다음 부분에서도 다시 그들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3: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짧은 계시록에서 주님은 두 번에 걸쳐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마는 미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짜 유대인이라고, 악마 숭배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유대라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등의 의견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쓰게 합니다. 사람의 형편보다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 계시록은 가짜 영국인도 가짜 프랑스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가짜 유대인에 관해서는 일단 아니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은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매우 관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 텍스트는 이 같은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①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가짜 유대인들이 존재한다.

② 그들은 악마 숭배자이다.

③ 그들이 올바른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이상의 3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이다>

먼저 ① "가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살펴 보자. 현재 유대인이라고 되어있는 사람들은 중동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국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안네 프랑크와 키신저로 대표되는 색상 백색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종 유래에 관해서 유대인 작가 아서 괴슬러가 '제 세 무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실은, 셈족 황인종 인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백인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종 유래는 유럽, 흑해 근처에 살고 백인종 인 하자르카간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8 세기에 유대교 집단 개종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자르카간국사람들은 유대교의 문화, 습관, 언어를 도입했습니다. 결과 색상 흰색 유대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교를 믿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혈통이나 인종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다 해도 그들 자신의 혈통과 유전은 여전히 백인이며, 그들이 황인종인 셈족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다른 인종입니다.

그들 자신도 스스로의 뿌리가 진짜 유대인이 아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정의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유대인의 족보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봐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남자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 유대인들은 그들의 남계의 조상을 추적하면 중 백인종, 하자르카간국에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계"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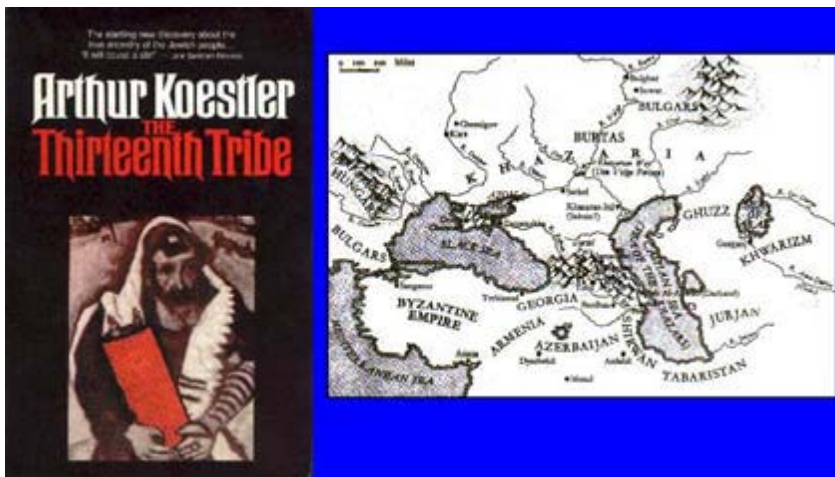
<그들은 악마 숭배자이다>

다음으로 ② 그들은 유대인이 악마 숭배자라는 것을 보고 갑시다. 이면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악마를 숭배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는 얼마든지 있지만, 예를 들어 그들의 종교이다 유대교의 경전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탈무드에는 악마의 가르침 밖에 생각되지 않는 많은 불쾌한 표현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 산히도린 106a 예수의 어머니는 매춘부였다고한다. "그녀는 목수와 창녀 놀이를 한 총독의 왕 여자이다."

● 사팻토 104b 각주 # 2 에는 "확인할 수 없다"탈무드의 텍스트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용사로 많은 남자와 어우러진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열 세번째 사족 : 아서 퀴슬러

지금 유대인들이 흑해 부근의 하자르카간국인종의 후손임을 말한다

●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계명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의미이다. 어휘, 노아의 아들 등 이교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모세 바루 · 마에몬>

그들은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방인이라면 죽여도 용서된다고 설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살인을 용인하거나 바로 악마의 가르침 밖에 생각되지 않는 무서운 가르침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의 「이방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지금의 유대인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결과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웃 팔레스타인을 폭격하고, 전차로 밟아 부수거나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인정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쓰는 것처럼 악마입니다.

<그들은 환난 시대를 도래시키다>

자, ③ 기독교에 대한 박해하는 것을 보고 갑시다. 위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 "너희는 열흘 동안 고통 (환난)을 받는다"에 사용되는 "고통 (환난)"라는 말은 마태 복음 24 장 환난 시대를 나타내는 말 같은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따라서 그들은 가짜 유대인이 환난 시대와 관련된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순교가 일어나는 교회이지만 그 환난은 분명히 가짜 유대인이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종말의 날의 환난 시대에도 가짜 유대인이 많이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의 나라 미국을 좌지우지 가짜 유대인>

성경은 종말의 날의 환난 시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짐승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13: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위와 같이 42 개월, 즉 3 년반 환난 시대는 짐승의 나라 미국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은 가짜 유대인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단지 인구 그러나 부의 대부분을 손에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로스 차일드와 록펠러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미국과 유엔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유엔 석유 식량 미디어 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히로세 다카시의 '붉은 방패 "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미국 만들어져있다>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은 다가올 환난 시대의 제공으로 올바른 기독교를 박해, 체포, 투옥, 목숨을 빼앗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수백 개소로 준비되어있는 강제 수용소는 올바른 기독교인을 체포 박해하기 위해 중 사용되는 것입니다. 같이 준비되어있다 길로틴은 다음과 같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있다 참수 된 순교자들을 낚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4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현재 미국의 국가는 미움과 증오를 끓어시키는 것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법률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경대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성애의 집회에 대해 시위로 항의 한 그리스도인은 체포된다. 그리고 징역 47 년, 벌금 수만 달러를 구형되고있다.**

*** 슈퍼마켓 앞에서 성경 들고 노방 전도를하고있는 목사는 체포된다.**

*** 길거리에서 토라쿠토을 나눠 기독교인이 체포된다.**

어쨌든처럼, 미국은 성경에 예언 된 짐승의 나라의 본성을 드러낸 것처럼 모든 형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의 경향은 노인들의 어려운 것이 되어있어 진정 기미 등 없습니다.

이 추세라면 머지 않아 강제 수용소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 메워졌고 단두대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목을 잘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경고되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가짜 유대인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증오하는 가짜 유대인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종말의 날에 세계 모든 올바른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전 세계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날은 도대체 어떻게하고 도래하는 것일까요? 그 전제로서 먼저 짐승의 나라 미국 일국에 의한 세계 지배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지배의 날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 그런 날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다면 그 날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짐승의 나라 미국은 그날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하나를 생각해도 그 준비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비는 한 나라에서만 전 세계 군사비의 40 %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인 넘버원입니다.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를 더해 낸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봐도 미국에 짐승의 국가 자격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세계 지배, 그리고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목표로 가짜 유대인의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의 배교는 잠입 한 가짜 유대인에 의해 추진된다>

성경은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 거짓 가르침과 교리를 반입을 예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적혀 있듯이, 성경은 원수가 가라지, 즉 사람을 멸하는 가르침을 밭교회에 뿌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하고, 예를 들어 위치타워처럼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물론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의 뿌리는 유대인 인 사람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잠입 이상한 이단 교리를 반입 사람들도 유대인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것은 언젠가 별도 봅시다.

<가짜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하여 교회의 배교가 진행된 후,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쫓아 적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적 그리스도가 교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들어가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① 먼저 교회가 배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단지 인간이고 결혼도하고 아이도했고,
신약 성경은 뺄이라고 공언하게된다.

②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죄라고했던 것을 서슴없이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오도한다. 결과 동성애 수용 등 성경을 거스르는 행동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있게된다.

③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추방되고 그 대신 적 그리스도가 그 지위를 차지한다.

이 적 그리스도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부터 말하면 가짜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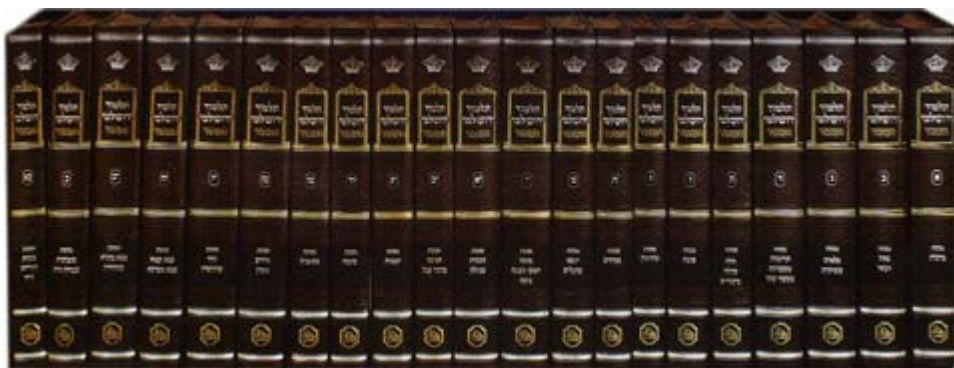
<결국은 가짜 유대인 의한 짐승의 나라도 적 그리스도도 멸망한다>

그런데, 이렇게 음모를 다하여 가짜 유대인들은 고심하고 짐승의 나라를 만들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기 위해 가짜 유대인 교회의 하나님 이요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 7: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데살로니가후서 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짐승의 나라는 구워진 적 그리스도도 시원스럽게 멸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경전 탈무드 :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저주로 가득하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2)

올해 5 월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의 예배 메시지 있어서도"성령의 열매 "에 대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예레미야 목사가 단어 되어 있었으므로, 그것도 소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내용도 영생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 내 개인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여과지 차면 읽어 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4:26 ○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4: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4: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4: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물린'을 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물린 썩기"라는 것이 통합니다. 그리고 '물린'을 넣는 점으로는 '열매'입니다. "실"은 "성령의 열매"로 통합니다. 포인트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라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되면 사신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와 있지 않은 기독교인은 거두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거두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목 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시편의 말씀도 살펴 보자.

시편 128:3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열매"를 맺을 수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는 갈라디아서의 편지에 쓰여있는 "성령의 열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인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필수이므로 그 것을 유념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에 대해 마태 복음에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살펴 보자.

마태복음 3: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8 절에 "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10 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큰일이 될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 오버에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실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걸음을 질문하는 회개가 중요이라는 것을 여기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진지하게 추구 나가야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 절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10 절에 기록되어있는 것은 후세의 것이 아니라 현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 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의 10 절 것은 현대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또는 "불에 구워지는"은 내세의 지옥의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한 영에 걸려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불, 즉 미혹의 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열매만을 맺고 있는 사람은 미혹의 불에 던져 버립니다. 게다가 지금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에 있는 사람은 설마 자신이 불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불에 구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를 점점 찾아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를 되어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으므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지 중에서도 알려져 있었듯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의 편지에 쓰여있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5 장 22,23 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에 착안해 걸어 간다면, 거두게 되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일지도 모른다 다니 생각하면, 꼭 실천해보십시오. 항상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구워지다